

올림픽 9연패 양궁 여자대표 대한체육회 체육대상 '명중'

펜싱 김정환·여자배구팀 경기 부문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서 단체전 9연패를 이룬 양궁 여자 국가대표팀이 대한체육회 체육상의 대상 격인 체육대상을 받는다.

체육회는 1988 서울올림픽부터 도쿄올림픽까지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 9연패를 달성한 국가대표팀을 68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체육대상 수상팀으로 선정했다고 24일 전했다.

특히 여자 양궁 대표팀의 간판 안산(21·광주여대)은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출전 선수로는 처음으로 '3관왕' 위업을 달성했다. 혼성 단체전에서는 조대 챔피언에 이름을 올렸다.

체육회는 지난해 11~12월 체육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아 사정심사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올해 1월 24일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경기 부문 최우수상은 펜싱 사브르 대표팀의 만형 김정환(39·국민체육진흥공단)과 도쿄올림픽 여자배구대표팀이 공동으로 받는다.

김정환은 올림픽에서 2회 연속 남자 사브르 개



도쿄올림픽에서 단체전 9연패를 이룬 여자 양궁 대표팀 강채영(왼쪽부터), 장민희, 안산. /연합뉴스

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후배들과 힘을 합쳐 도쿄올림픽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김연경(34)을 앞세운 여자 배구는 투혼의 플레이를 펼치며 2012 런던 올림픽에 이어 도쿄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재현했다.

도쿄올림픽 남자 양궁 2관왕 김제덕(18·경북일고)과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4위에 오른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 도쿄올림픽 태권도 은메달리

스트 이다빈(26·서울시청) 등은 우수상을 받았다.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체육 진흥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올해에는 경기, 지도, 심판, 생활체육 등 8개 부문에서 9개 단체, 108명이 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남자 프로배구 코로나 여파 포스트시즌 축소 운영기로 정규리그는 3월 5일 재개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가 코로나19 여파로 2021-2022 포스트시즌(PS)을 단축해서 치른다. 정규리그 재개일은 또 한 번 밀려, 3월 5일이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4일 "삼성화재에서 3명의 선수가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다. 삼성화재는 리그 정상 운영 기준인 12명의 선수 엔트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추가 확진 선수의 코로나19 검체 채취일인 23일부터 열흘 뒤인 3월 4일까지 정규리그를 중단하고, 3월 5일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그 중단 기간이 14일을 초과해 잔여 시즌 경기 일을 축소해야 하는 코로나19 통합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정규리그 경기 수를 유지하되 포스트시즌 일정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KOVO는 "2개 구단 이상 출전 가능 선수가 12명 미만이면 리그를 중단한다"는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15일부터 24일까지 남자부 정규리그를 중단하기로 했다.

KOVO는 25일 리그 재개를 준비하며 새 일정 표도 공개했지만,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재개일을 28일로 또 미뤘다. 여기에 삼성화재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28일 재개도 불가능해졌다.

KOVO의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중단 기간이 2주 미만이면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잔여 경기 수를 유지하고, 2~4주 중단하면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 일정을 축소하기로 했다. 4주 이상 중단되면 리그를 조기 종료한다.

KOVO와 각 구단은 정규리그는 되도록 모두 소화하고, 포스트시즌 일정부터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3판 2승제인 플레이오프를 단판으로 하고, 챔피언결정전을 5판 3승제에서 3판 2승제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바꾼 배구장 모습. 지난 22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IBK기업은행 알토스의 경기가 선수들이 마스크를 쓰고 세트가 끝난 후 방역을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 스타들, 동계체전 줄줄이 기권

이승훈·이유빈 전 종목 출전 포기 황대헌도 쇼트트랙 500m 기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감동을 안겼던 빙상 스타들이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출전을 줄줄이 포기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4일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1HQ)과 쇼트트랙 이유빈(연세대)은 기권 의사를 밝혀 이번 대회에 불참한다"며 "쇼트트랙 황대헌(강원도청)은 남자 500m 경기를 기권했다"고 전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동메달리스트인 이승훈은 24일과 25일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리는 남자 1500m와 남자 5000m, 남자 매스스타트에 출전할 예정이었다.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을 합작한 이유빈도 24일과 25일 춘천의암빙상장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여자 500m, 여자 1000m, 여자 3000m 계주 경기에 출전 신청했다. 그러나 두 선수는 전 종목 출전을 포기했다. 특별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인 황대헌은 24일 춘천의암빙상장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남자 500m 경기를 포기했다.

2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남자 1000m는 정상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베이징올림픽 태극전사들은 동계체전에 출전해 겨울 스포츠의 인기를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종료 후 피로 누적과 다양한 외부 일정 탓에 동계체전을 건너뛰는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과 남자 대표팀 만형 락윤(고양시청)도 출전신청을 하지 않았다.

쇼트트랙 만연니 김아람(고양시청)과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막내 이준서(한국체전)도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쇼트트랙 대표팀 중 체전을 온전하게 치르는 선수는 박장혁·김동욱(이상 스포츠포토), 서휘민(고려대), 박지운(의정부시청)뿐이다.

이번 동계체전은 2년 만에 열린다.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던 제102회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됐다. /연합뉴스

베이징 감동 잇자...패럴림픽 대표 오늘 출국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2베이징패럴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연합뉴스

2022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25일 결전지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다.

한국은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지는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에 선수 32명과 임원 50명 등 총 8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이 중 69명의 본진이 25일 오전 1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향한다.

선발대 3명과 후보대 1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9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속에 대표팀 역시 최근 알파인스키, 아이스하키 등 일부 종목 선수단과 임원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확진자의 경우 음성 확인을 받으면 늦게라도 출국해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본진 출국 시 공항에서 별도의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과 윤경선 선수단장이 간단하게 격려를 전한 뒤 사진 촬영만 할 예정이다.

베이징 패럴림픽은 10일간 중국 베이징, 옌칭, 장자커우에서 열리며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등 총 6개 종목 78개 세부 종목의 경기가 치러진다. 한국 선수단은 6개 전 종목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 우리나라의 목표는 동메달 2개다. /연합뉴스

6월 US오픈골프에 아시아 상금왕도 출전

'통합 상금왕' 김주형 첫 수혜

미국골프협회(USGA)가 아시아프로골프투어 상금왕에게 US오픈 출전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시아프로골프투어는 USGA가 이런 결정을 알려왔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프로골프투어 2020-2022시즌 통합 상금왕 김주형(20·사진)은 오는 6월 열리는 US오픈 출전권을 받는다.

김주형은 "멋진 소식"이라며 "올해는 출발이 좋았는데, 더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뻐했다고 아시아프로골프투어는 전했다. 조민탄 아시아프로골프투어 커미셔너는 "USGA가 아시아 투어를 인



정해줘서 감사하다"면서 "김주형은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언차티드
- 2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 3관 시라노, 안테벨룸, 극장판 주술회전 0
- 4관 언차티드
- 5관 언차티드
- 6관 안테벨룸
- 9관 극장판 주술회전 0, 나이트메어 엘리
- 7관 씨네캐슬 나일 강의 죽음, 광대: 소리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8관 씨네캐슬 해적: 도깨비 깃발, 킹메이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2022.03.03.(목)-04.(금)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커스
박재홍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2.03.25.(금)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5